

오늘날 교회의 성령체험에 관한 목회서신

제2차 미국장로교회 정기총회(1975년)에 채택된 PCA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서신.

미국장로교 총회(PCA)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에 관해 널리 퍼진 많은 질문들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목회서신을 PCA교회들에게 보낸다.

PCA총회는 주님의 공동체에 나타난 새 생명의 모든 증거들에 대해 큰 기쁨을 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상 사람들의 삶에 계속해서 역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한다.

동시에 PCA총회가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 체험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PCA총회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오류 없는 법칙’인 것을 확신하며 교회들이 성령체험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신중하게 받아드리길 권면한다.

I. 성령세례에 관하여

구약의 요엘선지자와 다른 선지자, 신약에서는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성령세례가 약속되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 사도시대에는 때때로 성령세례에 대한 공공연하고 명백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정상적인 성령세례의 체험은 영적 거듭남과 일치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체험은 특별한 몇몇 크리스천들만 받은 은혜의 역사이거나 물세례 이후의 두 번째의 축복이라고 보아서는 안되며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과 성령이란 한 인격체를 영접하는 것을 분리시켜선 안 된다.

II. 성령이 내주하는 삶에 대하여

성령이 내주하는 삶은 영적 거듭남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삶의 첫 번째 증표는 믿는자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자에게 영생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이 구원의 확신은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굳건케 되어야 한다.

III. 성령충만에 대하여

성령충만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는자가 말씀에 의해 인도 되어질 때 성령충만이라고 한다. 성경말씀에 순종함으로 믿는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쳐 받은 구속의 혜택과 은혜 속에서 성장한다. 이 영적성장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증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 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모든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성령충만할 것을 명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은혜의 모든 방편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영적성장을 이루어야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며 불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며 우리가 성령충만하지 않게 된다.

IV.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믿는자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진다. 크리스천들은 이 은사들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업과 그리스도의 봄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참된 믿는자들은 모두 한가지 또는 여러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어떤 성령의 은사도 얕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이의 영광을 위해 잘못 쓰여져서는 안 된다. 성경에 쓰여진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는 다음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다: 롬 12:3-8, 고전 12:8-10, 고전 12:28, 압 4:11-16.

어떤 성령의 은사들은 분명히 끊겨졌다 (예: 사도에 대한 성령의 은사). 어떤 은사는 애매모호하며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없게 되었다 (예: “돕는 자”). 어떤 은사는 오늘날에도 확실히 나타났다 (예: “가르침”, “구제”). 어떤 은사들은 오늘날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했다 (예: “방언”, “기적”, “치유”).

A. 방언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방언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듣던 사람들에게는 외국어로 알려지고 있으나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방언의 정확한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현대 방언의 현상과 신약시대의 방언의 관계를 확실히 규정짓기도 어렵다. 그러나, PCA총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건의한다.

1. 우리 시대의 방언의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서 보는 견해는 성경에 쓰인 계시의 결정적인 특성과 상반된다.
2. 방언의 현상을 성령세례의 필수적인 증표로 보는 견해는 성경과 상반된다.
3.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의 공동체 내에서 분쟁과 분리를 야기시키거나 교회를 그 사역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방언의 현상은 성령은사의 목적과 상반되는 것이다.

B. 기적들

기독교 교회의 역사상 기적에 관한 토의와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출 4:1-9, 왕상 17:23-24, 요 2:11, 요 3:2에 세대별로 기록된 기적들은 하나님의 여러 사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어진 계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받은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의 표적들이다. 이러한 계시는 시대는 신약시대의 정경으로 끝났음으로 계시와 관련된 기적도 함께 그쳤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와 거룩한 섭리를 “기적”과 “경이”라는 단어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이적과 치유로 제한 시켜서는 안 된다. 오늘도 이러한 기적은 확실하게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PCA총회는 표적과 기적에 사로잡힌 강박관념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는 주의의 말을 보낸다. 성령께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것과 거듭난 자들의 삶에 능력을 공급하신다. 믿음과 영적성장의 참된 근거는 성령께서 믿는자들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그 말씀만으로 온전한 영적성숙을 충분히 이를 수 있게 한다.

PCA총회는 오늘날 체험되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관용하기를 바란다.

교회는 이 문제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기 바라며 PCA총회는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1.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관한 성경말씀의 가르침을 위해 많은 기도함으로 연구.
2. 성경말씀, 삼위일체, 은혜의 가르침에 관한 교회의 신조에 관한 연구.
3. 사려 깊은 훈련, 성경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교육과 개혁교회의 믿음과 건강한 교회의 연합을 위해 교회의 지도력과 지도자와 교사의 진단과 선택.
4. 교회의 신조와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설교와 교육.
5. 교회 내에 은혜로운 분위기의 장려.